

TV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에 표현된 갑주유형 분석

- 고구려시대 갑주를 중심으로 -

조미숙* · 김은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An Analysis of the Types of Panoplies in the TV Dramas

Yeongaesomun and *Taewangsasin-gi*

- Focusing on the Panoplies of the *Goguryeo* Dynasty -

Mi-Suk Cho* · Eun-Jung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투고일: 2009. 12. 17, 심사(수정)일: 2010. 3. 5, 게재확정일: 2010. 3. 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how helmet and armor was reinterpreted in historical play by considering general concept and type of old helmet and armor from the aspect of costume history and comparing the helmet and armor types of TV historical plays, *Yeongaesomun* and *Taewangsasingi*, whose historical backgrounds were based on the age of *Goguryeo*. The helmet and armor type shown in *Yeongaesomun* was reinterpreted as the one, which is close to historical investigation, by reappearing lamellar armor and *jongjangpanju*(helmet made of slim, long plate) shown in *Goguryeo* wall painting. The helmet and armor type shown in *Taewangsasingi* expresses fantastic helmet and armor by adding fantastic factor regardless of historical investigation. The study result reveals that there are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 factors between the helmet and armors of two historical plays. First, there was a classification in the display of character and story. The helmet and armor type shown in *Yeongaesomun* classified color and detail design depending on lamellar armor or character. In *Taewangsasingi*, the helmet and armor was manufactured depending on character's nature and the chain armors, which are lighter than existing helmet and armors, were usual. Second, they escaped from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about traditional helmet and armor. In *Yeongaesomun*, *myeonggwangae*(a type of armor), which might be popular, was not expressed and *Taewangsasingi* is free from an imperative idea of historical investigation by manufacturing helmet and armor referring to that of ancient Rome age. The modern sense was reflected to increase dramatic effect. The helmet and armor of *Yeongaesomun* provides modern feeling by using stainless steel material and modern color arrangement and that of *Taewangsasingi* is designed in modern, splendid way as it aimed at game development from the planning step.

Key words: historical plays(사극), helmet and armor(갑주), *Taewangsasingi*(태왕사신기), *Yeongaesomun*(연개소문)

I. 머리말

중국의 역사왜곡인 동북공정¹⁾이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고대사에 대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구려를 다루는 사극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물론, TV 드라마의 사극열풍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사로서까지 뻗어나간 데에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²⁾ 고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의 의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갑주이다. 갑주(甲冑)란 갑옷과 투구를 지칭하는 말로, 적의 공격무기인 화살, 창, 칼, 총알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다. 국가간의 전쟁이 빈번하던 고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갑주가 제작되어 착용했던 갑주의 전성기³⁾였기 때문에 고대사를 다루는 전통 사극에서 배우들이 입는 갑주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사극의상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특정 영화나 드라마의 복식을 분석대상으로 하거나⁴⁾ 고증 및 제작에 관한 연구⁵⁾, 색채와 미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⁶⁾가 주를 이루며, 사극에 표현된 고대갑주는 전체적인 드라마 복식 중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어⁷⁾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 시 중요한 방어구였던 갑주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대 무사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착용했던 갑주는 유물이 실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방영되는 사극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를 갖는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복식사적 측면에서 고대 갑주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을 고찰한 후 고구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TV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에 표현된 갑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극의상의 갑주표현이 어떻게 복식사적으로 재해석되었는가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고구려 사극 가운데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를 선정한 이유는 두 작품이 고구려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 동일한 제작사인 SBS 아트텍에서 의상을 담당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 반면, 한편으로 정사(正史)를 다룬 연개소문은 '고증'을 위주로 제작되었고, 사실과 허구가 복합된 태왕사신기는 '판타지'라는 180도 다른 의상 콘셉트⁸⁾를 지닌다는 차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갑주를 디자인 컨셉에 따라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고대 갑주에 관한 고찰은 문헌자료와 출토자료, 고구려 고분벽화를 참고자료로 하였으며, TV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에서 등장인물이 착용한 갑주는 인터넷 자료 및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II. 고대 갑주의 고찰

1. 고대 갑주의 유형





일반적으로 갑주란 갑옷과 투구, 부속구로 구성된 것을 통칭한다. 갑옷은 개폐형태에 따라 동환식(胴丸式)과 양당식(襖襠式)으로 구분되며, 갑편의 크기와 제작방법에 따라 찰갑(札甲)과 판갑(板甲)으로 나뉜다. 찰갑은 작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철판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것이고, 판갑은 찰갑에 비해 비교적 넓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말한다. 이러한 판갑은 다시 철판의 모양과 엮는 방법에 따라 세로로 긴 철판으로 만든 종장판갑, 삼각형의 철판으로 구성된 삼각판갑, 그리고 가로로 긴 철판을 이용해 만든 횡장판갑으로 구분된다.

투구는 전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무구(武具)로서 전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라는 기능적인 면 외에도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상징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해 투구에 장식이 붙거나 복발 위에 깃 같은 것을 장식하기도 하며,⁹⁾ 철판의 형태나 전체 모양에 따라 종장판주, 만곡종장판주, 차양주, 총각주, 관모형복발주, 복발주, 케형주로 구분된다.

부속구는 갑옷에 연결되어 동체부를 제외한 신체의 말단부를 보호하는 방어무구로¹⁰⁾ 방어하는 부위에 따라 경갑(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요갑,

<표 1> 고대 갑주의 유형

구분법	유형	설명	형태		
갑옷	개폐 형태	동환식	소찰로 앞뒤판을 만들고 앞판의 중앙에서 개폐	-	
		양당식	앞뒤판을 양어깨에서 연결하여 옆구리에서 개폐	-	
	크기, 제작법	찰갑	소찰편을 횡으로 혁결한 후 종으로 수결하여 상하의 유동성을 갖도록 한 갑옷	-	
		판갑	종장판갑	세로로 긴 형태의 철판을 가죽으로 엮거나 납작한 못으로 고정하여 만든 갑옷	 부산 북천동 종장판갑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2005, p. 112
			삼각판갑	가로로 긴 철판 사이에 삼각형의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	 함양 함백리 삼각판갑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2005, p. 115
			횡장판갑	가로로 긴 형태의 철판을 못으로 연결하여 만든 갑옷	 고령 지산동 횡장판갑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2005, p. 116
투구	철판, 전체 모양	종장판주	안쪽으로 흰 규형 철판을 연결하여 반구형 모체를 이룬 투구	 남원 월산리 종장판주 대가야복식, 2007, p. 234	
		만곡종장판주	규형의 철판을 S자형으로 만곡하여 반구형의 모체를 만들고 상부에 소형의 반구형 복발을 얹은 투구	 옥천 28호 만곡종장판주 대가야복식, 2007, p. 234	
		차양주	소찰을 가지고 반구형의 모체를 만들고 챙이 붙은 투구	 고령 지산동1-3호 차양주 철의 왕국 가야, 2006, p. 38	
		충각주	모체의 앞이 튀어나와 각을 이루어 평면형은 행인(杏仁)형인 투구	 고령 지산동 32호 충각주 철의 왕국 가야, 2006, p. 39	
		관모형복발주	소찰로 모체를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변(弁)형의 관모를 복발로 얹은 투구	 함천 반계제 관모형 복발주 철의 왕국 가야, 2006, p. 40	

구분법	유형	설명	형태
투구	철판, 전체 모양	복발주 반구형의 철판을 앞뒤 정중에서 연결하여 모체를 이루고 정상에 반구형의 복발을 얹은 투구	 안암지 출토 복발주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 1998, p. 131
		괘형주 좁은 식물성 재료를 중횡으로 엮어 모체를 만들고 정상에 높은 입식으로 장식한 투구	 천마총 출토 괘형주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 1998, p. 131
부속구	보호 신체 부위	경갑(頸甲) 목을 보호하는 부속구, 나팔모양	 남원 월산리 경갑 대가야복식, 2007, p. 235
		견갑 양 어깨와 쇄골부위를 보호하는 부속구	
		상박갑 어깨 끝부분에서 팔꿈치까지를 보호하는 부속구	
		평갑 팔꿈치관절부터 손목까지를 보호하는 부속구	
		상갑 골반부와 대퇴부를 보호하는 부속구	 고령 지산동 견갑 대가야복식, 2007, p. 235
		요갑 허리 부분을 부호하는 부속구	
		대퇴갑 허벅지를 보호하는 부속구	
		경갑(脛甲) 정강이를 보호하는 부속구	

대퇴갑, 경갑(脛甲) 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고대 갑주의 유형을 분류하면 제시된 <표 1>¹¹⁾과 같다.

2. 고구려시대 갑주


고구려 갑주의 실물자료는 4C이후 오녀산성, 고이산성, 집안고구려분(천추묘, 우산하 41호), 서울아차산성에서 출토¹²⁾되었는데, 소찰편만이 확인되어 갑주의 전모를 알기 어렵다. 다만 갑옷의 일부인 소찰의 기본적인 형태는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모가 나 있으며, 천추묘에서는 금동(金銅)의 소찰도 확인되어 화려한 금동 갑옷도 있었으리라 판단된다.¹³⁾ 갑주의 일부인 고구려 투구는 고이산성의 소찰편을 복원한 종장판투구와 농오리 산성에서 출토된 종장판투구가 복원되어 알려져 있으며, 아차산성에서 종장판투구에 연결되는 복발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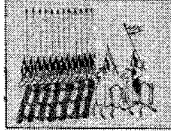

하지만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되는 무기와 갑주의 양은 신라나 가야의 그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다.¹⁴⁾ 이는 신라나 가야인들은 지위 높은 사람이 죽


었을 때 생전에 쓰던 물건과 함께 부리던 사람까지 죽여 무덤에 넣어주었지만,¹⁵⁾ 고구려인들은 장례식 때 매장이 끝나면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에 입던 옷과 노리개, 수레와 말을 가져다가 무덤 곁에 두면 장례에 참석한 자들이 서로 다투어 가져갔다고 한다.¹⁶⁾ 대신 무덤의 네 벽과 천장에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고분벽화'이다. 이러한 벽화는 출토유물에서 볼 수 있는 소찰편으로 구성되었음직한 갑주의 착장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고구려벽화고분은 평양·안악일대 76기, 중국 단인(相仁)·집안지역 30기 등 총 106기로,¹⁷⁾ 이 가운데 갑주가 그려진 벽화는 집안12호분, 마선구1호분, 삼실총, 감신총,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팔청리고분, 대안리 1호분, 쌍영총, 안악2호분 등 11기이다. 이러한 벽화에 묘사된 갑주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2>¹⁸⁾와 같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갑옷의 유형 가운데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찰갑이다. 그 외 덕흥리 벽화

〈표 2〉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갑주 유형

지역	고분명(시기)	갑주화상모습	갑주유형		
집안 지역	집안12호분 (4C후반)	 북쪽무덤칸 안칸왼쪽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89	갑옷	기병(槍手) 보병(大刀手)	찰갑 찰갑
			투구	기병(槍手) 보병(大刀手)	- 관모형복발주
			부속구	기병(槍手)	상박갑, 상갑
				보병(大刀手)	頸甲, 상박갑, 상갑, 대퇴갑, 脛甲
	마선구1호분 (4C후반)	 안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234	갑옷	기병	-
			투구	기병	-
			부속구	기병	-
	삼실총 (4C말~5C초)	 첫째칸 왼쪽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300	갑옷	기병(長槍手)	찰갑
			투구	기병(長槍手)	관모형복발주
			부속구	기병(長槍手)	상박갑, 대퇴갑
		 둘째칸 왼쪽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301	갑옷	보병(還刀手)	찰갑
			투구	보병(還刀手)	관모형복발주
부속구			보병(還刀手)	頸甲, 상박갑, 쾡갑, 상갑, 대퇴갑, 脛甲	
평양 지역	갑신총 (4C전반)	 앞칸서쪽벽 남쪽부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235	갑옷	보병(還刀手)	누빈 갑옷
			투구	보병(還刀手)	종장관주
			부속구	보병(還刀手)	頸甲, 상박갑, 상갑
			 앞칸남벽 서쪽부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82	갑옷	보병(還刀手)
	투구	보병(還刀手)		종장관주	
	부속구	보병(還刀手)	頸甲		

지역	고분명(시기)	갑주착장모습	갑주유형		
평양 지역	안악3호분 (357년)	 동회랑동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55	갑옷	보병(弓手)	찰갑
			투구	보병(弓手)	책
			부속구	보병(弓手)	상갑, 頸甲
		동회랑동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51	갑옷	보병(槍手)	찰갑
			투구	보병(槍手)	종장판주
			부속구	보병(槍手)	頸甲,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안악3호분 (357년)	 동회랑동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51	갑옷	보병(還刀手)	찰갑
			투구	보병(還刀手)	책
			부속구	보병(還刀手)	상갑
		동회랑동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51	갑옷	기병(長槍手)	찰갑
			투구	기병(長槍手)	종장판주
			부속구	기병(長槍手)	頸甲, 상박갑, 상갑, 대퇴갑, 脛甲
덕흥리고분 (408년)	 앞칸동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137	갑옷	기병(槍手)	혁제 갑옷	
		투구	기병(槍手)	종장판주	
		부속구	기병(槍手)	頸甲, 상갑, 요갑, 대퇴갑, 脛甲	
약수리고분 (4C말~5C초)	 앞칸동벽과 앞칸남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264	갑옷	기병(槍手)	찰갑	
		투구	기병(槍手)	종장판주	
		부속구	기병(槍手)	-	
팔청리고분 (4C말~5C초)	 앞칸동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286	갑옷	기병(槍手)	찰갑	
		투구	기병(槍手)	-	
		부속구	기병(槍手)	-	

지역	고분명(시기)	갑주착장모습	갑주유형		
평양 지역	대안리1호분 (5C중엽)	 행렬그림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2000, p. 54	갑옷	기병(槍手)	찰갑
			투구	기병(槍手)	-
			부속구	기병(槍手)	-
	쌍영총 (5C말)	 안길동벽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이야기, 2004, p. 13	갑옷	기병(槍手)	찰갑
			투구	기병(槍手)	만곡종장판주
			부속구	기병(槍手)	頸甲, 상박갑, 상갑, 요갑, 대퇴갑, 脛甲
	안악2호분 (5C말~6C초)	 안간남벽 동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Ⅰ, 2000, p. 216	갑옷	보병(槍手)	찰갑
			투구	보병(槍手)	종장판주
			부속구	보병(槍手)	頸甲, 상박갑
		 안간남벽 서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Ⅰ, 2000, p. 217	갑옷	보병(還刀手)	찰갑
			투구	보병(還刀手)	종장판주
			부속구	보병(還刀手)	頸甲, 상박갑, 상갑, 대퇴갑, 脛甲

고분의 행렬그림에 묘사된 개마무사의 갑옷은 표현상 소찰이 보이지 않아 혁제(革制) 갑옷으로 추정하고 있으며,¹⁹⁾ 감신총의 갑옷은 마름모의 선이 묘사되어 있어 누비로 누벼진 형태의 갑옷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투구는 고대 철제 투구의 대표적 양식인 종장판주와 함께 관모형복발주도 보이며, 투구에는 쌍각이나 위모(威毛) 등이 장식되어 있으며, 부속구는 병사에 따라 착용예의 차이를 보인다.

출토자료 이외에도 고구려 갑주에 관한 문헌자료에서 쇄갑의 존재와 명광개에 관한 언급이 확인된다. 먼저 쇄갑은 철사로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꿰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대(唐代)에 처음 등장하며, 서방에서 전해진 것이다. 쇄갑이 고구려 성내(城內) 주몽의 사당에 있었다는 기록²⁰⁾은 당시 상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¹⁾ 다음 명광개는 흉부와 등에 타원형의 호심(護心)이라는 판

이 있어, 빛을 잘 반사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²²⁾ 보장왕 4년, 안시성을 방어하던 남부육살 연수가 패하여 당나라가 명광개 1만벌을 노획했다는 기록²³⁾은 당시 명광개가 유행하였음을 말해준다.

Ⅲ. TV 사극을 통해 살펴본 갑주형태

고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의 경우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서사라는 창조적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하게 된다.²⁴⁾ 삼국시대의 전쟁은 산성을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 위주로 전개되며,²⁵⁾ 사극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성을 중심으로 군대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게 된다. 사극에 표현된 갑주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극 중 중요하게 다뤄졌던 전투 장면인 연개소문의 '안시성 전투'²⁶⁾ 장면과 태왕사신기의 '관미성 전투'²⁷⁾ 장면으로

한정하여 등장인물을 통해 갑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개소문²⁸⁾ 작품 설명 및 갑주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진²⁹⁾ 정통 사극 연개소문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였다는 ‘안시성 전투’를 1회와 2회를 통해 공들여 재현함으로써,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펙터클한 대규모 전투 장면을 선보였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장면마다 넘치는 박진감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특히 연개소문의 뛰어난 전략 아래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맹성으로 당 태종의 30만 대군을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쥔 고구려군의 모습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했다. ‘안시성 전투’장면을 통해 고구려군이 착용했던 갑주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최고 권력자였던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갑주는 <그림 1>³⁰⁾에서 머리에 투구만 쓰고 있지 앓을 뿐 목에서부터 다리에 이르기까지 찰갑으로 무장한 채로 등장한다. 고증을 통한 형태복원으로 인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찰갑기병의 갑옷을 재현하고 있다. 전체 갑옷의 색상은 갈색 계열로 경갑(頸甲)의 안쪽은 검은색 모피로 대고, 광갑(肱甲)과 경갑(脛甲)에는 동방의 수호신인 청룡의 문양으로 장식했다.

고구려의 명장으로 당시 안시성 성주였던 양만춘의 갑주는 <그림 2>³¹⁾에서 검정색으로 선이 가미된 진한 청색 계열의 찰갑을 입고, 투구 대신 이마에 검은색 띠를 매고 금색 상투관을 쓰고 있다.

온달의 손자인 온사문의 갑주는 <그림 3>³²⁾에서 청색만을 사용한 찰갑과 머리에는 화려한 문양이 있는 종장판주를 쓰고 있다. 준수한 외모에 무술 솜씨



<그림 1> 연개소문 갑주
연개소문, 2회 캡처



<그림 2> 양만춘 갑주
연개소문, 2회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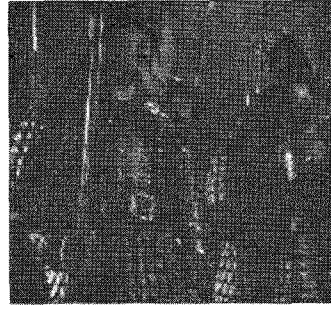
<그림 3> 온사문 갑주
연개소문, 1회 캡처



<그림 4> 연수정 갑주
연개소문, 2회 캡처



〈그림 5〉 조의 갑주
연개소문, 2회 캡처



〈그림 6〉 보병 갑주
연개소문, 2회 캡처

도 뛰어나 장수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로 절제된 색상으로 제작된 갑옷, 그리고 키를 한층 커 보이게 하는 복발의 장식과 큰 뿔이 달린 투구³³⁾를 착용하고 있다.

연개소문의 누이동생인 연수정의 갑주는 〈그림 4〉³⁴⁾에서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나 앞머리와 뒷머리를 짧아 윗부분에 뿔뿔 말아 화살촉 모양의 비너로 고정시키거나 옆머리를 작은 뿔 모양의 은색 장신구에 머리끝을 넣는 등 머리 장신구를 통해 전시 중심을 암시하고 있다.

고구려 무예 수련조적인 조의의 갑주는 〈그림 5〉³⁵⁾에서 승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 위에 무채색 계열의 회색 찰갑을 착용하고 있다.

보병들의 갑주는 〈그림 6〉³⁶⁾에서 비록 소재와 제작법에 있어 주요 인물들과 차이는 있지만 찰갑을 연상케 하는 갑옷과 뿔 달린 종장관주의 착용은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고구려군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었다고 본다.

2. 태왕사신기³⁷⁾ 작품 설명 및 갑주

국내 최초 판타지드라마인 태왕사신기는 ‘배용준’이라는 한류스타가 출연하고, 430억이라는 드라마 사상 전무후무한 제작비, 국내 방송사상 최대 규모였던 수십만명의 엑스트라 동원 등으로 인해 방영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다.³⁸⁾ 하지만 그 무엇보다 큰 화제가 되었던 건 ‘창작’과 ‘고증’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갑주³⁹⁾였다. 태왕사신기의 갑주는 12회부터 고구

려가 백제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백제와의 전투 가운데 특히 ‘관미성 전투’는 백제의 관미성 성주가 사신(四神) 중 청룡의 신물로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 중심에 있었다. ‘관미성 전투’당시 고구려 태왕군의 갑주모습을 등장인물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왕’은 중국의 천자 또는 황제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독자적 칭호로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이다.⁴⁰⁾ 극 중 태왕은 고구려 19대 왕인 광개토태왕이자 주신의 왕⁴¹⁾이다. 〈그림 7〉⁴²⁾에서 태왕의 갑옷은 여러 겹으로 어깨부분을 강조한 형태로, 가죽소재로 보이는 검정바탕에 높은 신분만이 쓸 수 있는 금색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고귀한 신분임을 암시한다.

태왕의 근위대장인 고우충은 〈그림 8〉⁴³⁾에서 고구려군의 대장장이인 바손이 기존의 갑옷보다 가볍고 견고하게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갑옷은 쇠사슬을 엮어 만든 것에 검정색 가죽으로 목판과 소매 부분을 만들어 서로 연결한 것으로, 목판의 중앙에는 광개토태왕의 고유한 상징으로 태왕군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⁴⁴⁾이 있다. 머리에는 투구 대신 금색의 상투관을 쓴 모습이다. 은색 쇠사슬 갑옷에 의한 금색제의 사용은 튼튼하면서 차가운 이미지를 준다.

흑개장군은 고구려 오부족 중 북의 절노부를 이끄는 절노부의 부족장이다. 〈그림 9〉⁴⁵⁾에서 흑개장군의 갑옷 역시 어깨를 강조한 형태로 가장자리에는 털이 달려져 있으며, 목판에는 은색으로 북쪽 방위를 지키



〈그림 7〉 태왕 갑주
태왕사신기, 14회 캡처



〈그림 8〉 고우총 갑주
태왕사신기, 14회 캡처



〈그림 9〉 흑개장군 갑주
태왕사신기, 14회 캡처



〈그림 10〉 수지니 갑주
태왕사신기, 14회 캡처



〈그림 11〉 중장기병 갑주
태왕사신기, 14회 캡처



〈그림 12〉 보병 갑주
태왕사신기, 15회 캡처

는 현무 문양이 있다. 투구는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닥가닥 머리를 땅아 함께 뒤로 넘겨 고정시켰다. 흑개장군의 자신감이 넘치며, 용맹스러운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수지니의 갑주는 〈그림 10〉⁴⁶⁾에서 저고리의 깃과

한복 바지 형태를 응용하여 전통적 느낌을 주는 한편, 언바란스하게 겹쳐 입은 레어드 룩에서 현대적 감각이 묻어난다. 내추럴 컬러인 베이지와 갈색 계열의 색상을 매치해 전체적으로 편안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태왕군의 중장기병은 <그림 11>⁴⁷⁾에서 근위대장 고우충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개발한 쇠사슬 갑옷을 입고 있다. 색상은 은회색으로 몸판에는 태왕군의 표식인 #문양을 볼 수 있다. 쇠사슬로 복부부분을 길게 늘어뜨려 감싸는 형태로 제작된 투구 역시 극 중 바손이 개발한 투구로 화려하게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태왕군의 보병은 <그림 12>⁴⁸⁾에서 양팔부분은 자유롭게 두고, 신체의 앞면과 등만을 보호하는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끼 형태로 된 갑옷의 착용은 활을 쏠 때 지장을 주지 않고, 걸거나 달리기 편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갈색 저고리위에 검은색과 회색이 조합된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색 투구를 썼다. 전체적으로 튀지 않은 계열의 색상을 선택함으로써 정돈되면서도 통일된 이미지를 준다.

IV. TV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의 갑주 비교분석

TV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는 '연개소문'과 '광개토대왕'의 일대기를 극화한 것으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고구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의 근간이 민족주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표현된 갑주는 각각 겨냥한 시청자층의 성향에 따라 달리 제작되었다. 이러한 전통갑주에 대한 해석은 고증의 관점에서 두 작품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1. 사극 갑주의 구성

1) 갑옷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표현된 갑옷은 대부분 찰갑이며, 일부 혁제 갑옷과 누빈 갑옷으로 추정되는 묘사가 보인다. 특히 고구려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찰갑은 간략화로 인해 찰갑을 이루는 갑편의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분에서 발굴되는 찰갑의 소찰들은 동일한 고분 내에서도 다양한 규격과 형태를 보인다. 이는 작은 소찰을 연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fitting성과 활동성이 높다는 찰갑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인체의 착장부위에

따라 크기와 형태를 약간씩 변화시킨 결과이며, 가장 전형적인 양식은 모서리를 다듬은 직사각형에 아래쪽만 둥글린 모양이다. 소찰을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가죽끈으로 연결하는 혁철(革鐵)방식과 못으로 연결하는 정결(釘結)방식이 있는데,⁴⁹⁾ 대부분은 소찰을 가죽끈으로 엮어 제작하는 방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⁵⁰⁾

연개소문에 표현된 갑옷의 유형은 단순하지만 품위가 깃든 고구려 벽화 속 갑옷 모습을 재현한 찰갑으로 소찰을 횡으로 연결한 후 종으로 수결하여 상하의 유동성을 갖도록 제작되었다. 극 중 소찰의 형태는 정사각형의 모양과 아래쪽이 둥근 비늘 모양으로 전통적인 연결방식 중 정결방식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갑주는 고증을 통한 형태복원으로 인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갑옷을 재현하고 있지만 갑옷의 소재는 철갑옷의 무게감으로 인해 첼보다는 가벼운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었다.⁵¹⁾ 한편 병사들의 갑주는 언뜻 보면 찰갑으로 보이나, 하나하나 엮어 만든 것이 아니고 비늘 가죽에 비늘 모양을 만들어 제작한 것이다. 이는 제작비와 시간상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대거 출동하는 보병들까지 찰갑을 입히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태왕사신기에 표현된 갑옷의 유형은 고증은 무시된 채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젊은 층의 성향에 맞춰 신화 속 이미지를 지닌 환상적인 갑옷이 탄생됨으로써 가죽소재의 갑옷과 쇠사슬 갑옷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태왕의 갑옷은 가죽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몸판의 가운데 원형을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갈라지는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원형은 태양을, 네 부분은 동, 서, 남, 북 즉 '사신(四神)'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왕만의 절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우충과 중장기병의 갑옷은 고구려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로마의 갑옷 컨셉트를 활용하여⁵²⁾ 쇠사슬과 가죽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마치 체인 메일을 입은 서양의 군사를 연상케 한다.

2) 투구

투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종장판주가 주류를

이루며 관모형복발주와 만곡종장판주가 묘사되어 있다. 머리부위를 보호하는 투구는 세로로 긴 철판을 옆으로 이어 만든 구조로 볼과 후두부 아래쪽을 가리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며,⁵³⁾ 양 옆에는 뿔이나 날개 모양을 달거나 투구의 정수리 부분에 새의 깃털이나 상모로 장식한 모습이 확인된다.

연개소문에 표현된 투구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습을 재현한 안쪽으로 휘 철판을 연결하여 반구형 모체를 이룬 종장판주이다. 갑옷과 같은 소재인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었는데, 투구의 양쪽에 큰 뿔을 달고, 정수리부분에 반구형 복발을 엮고 원통형의 길이가 긴 간주(幹柱)를 세운 후 상모로 장식하고 있다. 볼가리개는 생략되었다.

태왕사신기에 표현된 쇠사슬이 연결된 투구는 고종과 무관하게 금속제 철판과 쇠사슬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투구에 연결된 쇠사슬이 턱과 목까지 감싸는 형태로 고구려 고분벽화나 유물에서 확인되는 투구와는 거리가 있다.

3) 부속구

고분벽화를 통해 본 부속구 중 경갑(頸甲)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안악3호분의 일부 보병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갑이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병사, 특히 기병은 길이는 달라도 상박갑은 필수였던 듯 하며, 신갑(身甲) 아래에 상갑을 부착했고, 하체 전체를 보호하는 대퇴갑은 기병은 치마형을, 보병은 바지형을 입었거나 행동에 제약이 많았으므로 입지 않았다. 이처럼 한반도 남부의 출토 유물에 비해 목과 사지(四肢)를 보호하는 부속구의 착용이 많은 것은 고구려의 갑주의 특징⁵⁴⁾이다.

연개소문에서는 등장인물에 따라 경갑(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대퇴갑, 경갑(脛甲)의 착용을 볼 수 있다. 경갑(頸甲)은 견갑과 연결된 형태로 앞쪽보다 뒤쪽을 높게 하여 나팔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경갑의 모습과 일치한다. 조의를 제외하고 부속구를 잘 착용하고 있다.

태왕사신기에서는 경갑(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경갑(脛甲)의 착용을 볼 수 있다. 경갑(頸甲)은 갑옷과 연결되어 있는데 높이가 일정하게 낮은

형태로 고구려시대 경갑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수지니를 제외하고 부속구를 잘 착용한 모습이다.

2. 사극 갑주의 착장방식

갑주의 착장은 동서양에서 일반적으로 하체에서 상체에 이어지는 착장법을 사용하여 상갑, 흉갑, 견갑, 상박갑, 평갑, 투구 순으로 착용한다. 상갑의 경우 허리에 고정시킬 때 허리에 대한 하중이 커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 어깨로 걸 수 있게 하는 끈이나 조끼형태의 고정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흉갑의 경우도 어깨에 가죽끈을 부착하여 착용하였을 가능성⁵⁵⁾이 있다. 벽화에서 살펴본 갑주는 크게 두 가지 착장법을 보이는데, 하나는 상부와 부속구만을 착용한 경우, 다른 하나는 몸 전체를 갑으로 무장한 경우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투에서 그들의 역할과 기능 및 활동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상하에 갑옷을 착용한 사람은 기병으로, 전투대열 최선두에서 적진에 돌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몸 전체를 무장해야 하였을 것이고, 상부에만 갑옷을 착용한 사람은 보병으로 시종 걸어야 하기 때문에 대퇴갑 등의 부속갑이 거추장스러워 경갑(頸甲)만 착용⁵⁶⁾하였다. 이처럼 군대의 편성에 따라 구분되는 고구려 갑주의 착장과는 달리 사극에 표현된 갑주는 등장인물과 스토리 전개에 따른 갑주의 착장을 보여 주고 있다.

연개소문의 경우 주인공 연개소문의 전체적 색상은 갈색계열로 평갑과 경갑에는 동방의 수호신인 청룡의 문양을 장식했다. 이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연개소문의 단독적인 색상의 사용, 그리고 청룡문양이 있는 부속구로 중무장한 갑옷의 착장모습에서 자신감 넘치는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있는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양만춘과 온사문은 청색계열의 갑옷과 부속구를 착용함으로써 단순하지만 강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여전사인 연수정은 다른 장군들과 동일하게 청색계열의 찰갑을 착용하였지만, 몸에 붙는 라인의 갑옷 안에 선명한 붉은색 저고리와 바지를 매치시켜 시각적으로 화려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투구 대신 작은 뿔 모양의 은색장신구를 착용하였다. 조의는 한쪽 팔을 드러낸 갑옷과 한

쪽 어깨에만 상박갑을 착용하여 용맹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갑옷은 <그림 13>⁵⁷⁾과 같이 갑옷의 앞뒤판을 양어깨에서 연결하여 옆구리에서 끈으로 묶어 고정할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 이는 고대 갑주의 개폐

형식인 양당식에 해당된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태왕은 환상적인 갑옷에 투구 대신 부드러운 이미지 위에 술을 많이 친 긴 헤어스타일로 등장함으로써 전체적인 착장은 강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조화를 이룬다. '관미성 전투' 장면

<표 3> TV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 갑주의 구성과 착장방식

구분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비고
	인물	유형	인물	유형	
갑옷	연개소문	찰갑	태왕	가죽소재 갑옷	연개소문-장식을 배제하여 단순하지만 품위가 깃든 고구려 벽화 속 갑옷을 재현한 찰갑 태왕사신기-화려한 장식이 있는 갑옷과 극중 대장장이인 바손이 개발한 쇠사슬 갑옷
	양만춘		고우충	쇠사슬 갑옷	
	온사문		흑개장군	가죽소재 갑옷	
	연수정		수지니	-	
	조희		중장기병	쇠사슬 갑옷	
	보병		찰갑모양 갑옷	보병	
투구	연개소문	- 빨 달린 중장관주	태왕	- 쇠사슬 달린 투구	연개소문-온사문과 보병을 제외하고 투구를 착용하지 않음. 형태는 벽화 속 투구와 유사 태왕사신기-주요 인물들은 쓰지 않음. 중장기병은 바손이 개발한 쇠사슬이 달린 투구를 쓰고 보병은 중장관주를 착용
	양만춘		고우충		
	온사문		흑개장군		
	연수정		수지니		
	조희		중장기병		
	보병		빨 달린 중장관주		
부속구	연개소문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대퇴갑, 脛甲	태왕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연개소문-조의를 제외하고 부속구를 잘 착용한 모습, 특히 고구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높은 경갑(頸甲)의 착용은 바람직함 태왕사신기-수지니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속구를 잘 착용하고 있음. 경갑(頸甲)과 견갑, 상박갑 등이 몸판과 같이 붙어 있는 형태
	양만춘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고우충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온사문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흑개장군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연수정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수지니	팔에 도시	
	조희	한쪽에만 상박갑	중장기병	頸甲, 견갑, 상박갑, 평갑, 상갑, 脛甲	
	보병	평갑, 상박갑, 脛甲	보병	평갑, 상갑, 脛甲	

착장 방식



<그림 13> 옆에서 개폐하여 착장
연개소문, 1회(좌), 2회(우) 캡처



<그림 14> 뒤에서 개폐하여 착장
태왕사신기, 13회(좌), 16회(우) 캡처

에서 수지니는 화려한 갑옷의 착장 대신 활동성을 강조한 수수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의상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수지니의 의상은 고구려 갑주의 한계를 넘어 최근 패션 트렌드인 자연스러운 색상과 레이어드 룩을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고전적 이미지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추구하였다. 고우총과 중장기병은 극의 전개상 태왕군의 승리를 타당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기존의 갑주보다 가볍게 제작된 쇠사슬 형태의 갑주를 착장하고 있다.

〈그림 14〉⁵⁸⁾는 극 중 수지니가 태왕께 갑옷을 입혀드리는 장면으로, 갑옷에 경갑과 견갑 등 상체의 부속구가 모두 연결이 되어 하나로 완성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갑옷은 착장시 앞에서부터 갑옷을 몸에 끼워 넣은 후 뒤에서 몸에 맞게 끈으로 조여 묶는 방식임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작의도에 따라 연개소문은 고분벽화의 갑주모습을 참고로 하여 가장 고구려다운 갑옷을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태왕사신기의 경우 고구려 사극이지만 고대 로마의 갑옷 형태를 활용하거나 계임을 하는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전통적 이미지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디자인함으로써 갑주를 통해 극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에서 등장인물이 착용한 사극 갑주의 구성과 착장방식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위의 〈표 3〉과 같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사극에 표현된 고대 갑주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현대에 들어와 제작되어 방송이라는 미디어적 속성으로 인해 방송이 갖는 일반적 이념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요구받게 됨으로써,⁵⁹⁾ 고종과 창작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구려 사극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에 표현된 갑주를 복식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고대 갑주의 일반적 개념과 고구려시대 갑주유형을 고찰한 후 두 사극에서 재해석된 갑주를 서로 비교하였다.

연개소문과 태왕사신기의 근간이 민족주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극 중 표현된 갑주는 각각 겨냥한 시

청자층의 성향에 따라 달리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전통갑주에 대한 해석은 고종의 관점에서 두 작품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사극 갑주의 구성을 갑옷과 투구, 부속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갑옷은 연개소문의 경우 단순하지만 품위가 깃든 고구려 벽화 속 갑옷 모습을 재현한 찰갑이나 태왕사신기는 고종은 무시된 채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젊은 층의 성향에 맞춰 신화 속 이미지를 지닌 환상적인 갑옷이 탄생됨으로써 가죽 소재의 갑옷과 쇠사슬 갑옷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연개소문의 투구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습을 재현한 안쪽으로 흰 철판을 연결하여 반구형 모체를 이룬 종장판주이지만 태왕사신기의 투구는 고종과 무관하게 금속제 철판과 쇠사슬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나 유물에서 확인되는 투구와는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속구의 경우 연개소문의 경갑(頸甲)은 앞쪽보다 뒤쪽을 높게 한 나팔모양으로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경갑의 모습과 일치하지만 태왕사신기의 경갑(頸甲)은 갑옷과 연결되어 있는 높이가 일정하게 낮은 형태로 고구려시대 경갑과 차이를 보인다.

둘째, 사극 갑주의 착장방식을 분석한 결과 연개소문의 경우 갑옷의 앞뒤판을 양어깨에서 연결하여 옆구리에서 끈으로 묶어 고정할 수 있게 제작한 고대 갑주의 개폐형식인 양당식에 해당되는 반면 태왕사신기의 경우 갑옷에 경갑과 견갑 등 상체의 부속구가 모두 연결이 되어 하나로 완성된 형태로 앞에서부터 갑옷을 몸에 끼워 넣은 후 뒤에서 몸에 맞게 끈으로 조여 묶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갑주의 착장과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사극에서 재해석된 갑주는 단순히 방어구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극 중 등장인물의 지위와 성격,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작품의 제작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사극은 진화하면서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통사극의 의상은 철저한 고증이 필요한 반면 퓨전과 판타지 사극에서 표현되는 의상은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해석능

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올바른 사극의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작이 발휘되더라도 먼저 면밀한 복식사적 사료의 검토를 바탕에 둔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사회주의 이후의 국가·국민통합의 새로운 기반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인식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중심(邊疆史之中心)에서 2002년 2월부터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연구공정'이라는 제목으로 5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것들 중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한국의 정부와 학계, 언론 및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 최강식 (2004).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p. 3.
- 2) 유미진 (2007). TV 사극 의상의 미학적 고찰-TV 사극 <주몽>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 3) 국립김해박물관 (2002). 한국고대의 갑옷과 투구. 마이 다스21, p. 10.
- 4) 은지연 (2002). 영화 '춘향전'의 복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희 (2003). 조선후기 춘향전과 영화 춘향전의 복식과 화장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은희 (2004). 명성왕후가 등장하는 TV사극에 나타난 의상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수경 (2004). 영화 '스캔들'의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5).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의상 비교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2005). 영상물 '장희빈'복식의 고증실태와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현 (2007). 한국의 사극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조선시대 여성 의상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봉현숙 (2000). TV사극드라마 의상의 고증에 관한 연구- '대왕의 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혜은 (2003). 사극 드라마 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2009). 한국 영상매체에 나타난 의상고증에 관한 연구-영·정조시대 TV사극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최정은 (2007). 영화 '스캔들'에 나타나는 한복 배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여선 (2007). 한국 영화와 TV드라마에 전통복식에

나타난 색의 변화와 이미지의 상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미혜 (2007). 드라마 '황진이'복식을 통해 본 현대 한복의 미의식 변화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민정 (2008). 한국 사극영화 복식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프로덕션 디자이너 정구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유미진. 앞의 논문.
- 8) 이해리 (2006. 5. 25). 경쟁작 연개소문·태왕사신기. 의상은 내부 첩보전. 노컷뉴스. 자료검색일 2009. 11. 6. 자료출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37293>
- 9) 국립김해박물관. 앞의 책, p. 44.
- 10) 장경숙 (2005).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3.
- 11) 김정자 (1998). 한국 군복의 변천사 연구. 서울: 민속원, pp. 38-42.
- 조우현, 권준희, 박윤미, 김혜영, 조현진 (2007). 대가야복식. 서울: 민속원, pp. 233-235.
- 국립김해박물관. 앞의 책, pp. 24-56.
- 국립중앙박물관 (2006). 철의 왕국 가야. 서울: 통천문화사, pp. 32-40.
- 위의 논문, pp. 94-116.
- 12) 위의 논문, pp. 31-35.
- 13) 국사편찬위원회 (2007).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서울: 두산동아, p. 51.
- 14) 서영교 (2004).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의 전술과 무기-기병무장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7, p. 347.
- 15) 히스토리카한국사 편찬위원회 (2009). 히스토리카한국사 신라+가야. 이끌리오, p. 132.
- 16) 隨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條. 埋訖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 置於臺側 會葬者爭取而法.
- 17) 전호태 (2005). 연구총서2. 고구려 연구재단, p. 12.
- 18) 장경숙. 앞의 논문, p. 41.
- 김정자. 앞의 책, p. 158.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I. 국방군사연구소, pp. 79-101.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51-301.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3.
- 전호태 (2004).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p. 13.
- 19) 김정자. 앞의 책, p. 149.
- 20) 三國史記, 卷9. 高句麗本紀, 寶藏王 4年. 城有朱蒙祠 祠有鎧甲晚矛.
- 21) 장경숙. 앞의 논문, p. 70.
- 22) Koichi Shinoda (1992). 武器と防具 中國編. 신동기역 (2001).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들녘, p. 397.
- 23) 三國史記, 卷9. 高句麗本紀, 寶藏王 4年. 遷之內地 餘皆縱之 使還平壤收靺鞨三千三百人 悉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明光鎧萬領它器械稱是.
- 24) 유미진. 앞의 논문, p. 39.

- 2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56.
- 26) 고구려와 당나라가 속명의 대결을 벌인 안시성 전투는 당 태종이 치밀한 계획 아래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벌인 사활을 건 전쟁으로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송영만 (2007). *역사스페셜 6*. 효형출판, p. 76. 역사적으로는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이 승리를 이끌었으나, 극에서는 연개소문의 전략 아래 승리한 것으로 각색되었다.
- 27) 관미성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에 있는 성으로, 오두산성이라고도 불린다. 광개토대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넓혀 왔지만, 백제의 관미성만큼은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었다. 모든 배를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데다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치열한 공방전 후 결국은 고구려가 승리한 전투이다. 조근태 (2008). *한국의 전투와 무기*. 현암사, p. 30. 극에서는 청룡의 신물이 있는 곳으로 그려졌다.
- 28)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고구려 역사복원을 목표로 한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은 중국 사서에 의해 왕을 죽인 독재자로 폄하됐던 연개소문을 그가 살았던 격동의 세월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인간적이며 전설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2006년 7월 8일부터 2007년 6월 17일까지 방영되었다.
- 29) 이환경 작가는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으로 동북공정을 무색케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홍승완 (2006. 7. 14). 민족주의와 남성성으로 시청자 눈길 잡기 성공한 연개소문. *해럴드 생생뉴스*. 자료검색일 2009. 10. 14. 자료출처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07/14/200607140050.asp
- 30)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2회 다시보기.
- 31)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2회 다시보기.
- 32)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1회 다시보기.
- 33) 극 중 투구의 빨은 중국 이상의 스케일을 강조하기 위해 벽화 속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제작되었다. 박선영 (2006. 4 21). 고구려의 컬러를 상상하라.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09. 10. 29일. 자료출처 <http://news.hankooki.com/1page/culture/200604/h2006042118574875670.htm>
- 34)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2회 다시보기.
- 35)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2회 다시보기.
- 36)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2회 다시보기.
- 37)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는 주신의 별 아래 태어난 담덕(배용준 분), 연호개(윤태영 분)가 왕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주신의 수호신인 현고, 백호, 청룡, 주작의 신물을 찾는다는 스펙터클한 내용으로, 2007년 9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5일까지 방영되었다.
- 38)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보도자료. 자료검색일 2009. 11. 26. 자료출처 http://www.imbc.com/broad/tv/drama/legend/news/1660114_23427.html
- 39) 한국판 반지의 제왕이 아닌 한국만의 새로운 판타지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종학 감독은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패션 디자이너 박윤정씨에게 “이 세상에서 본 것 같지 않은 환상적인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자료검색일 2009. 11. 26.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aris03/90022186387>
- 40) 히스토리카한국사 편찬위원회 (2007). *히스토리카한국사 고구려+백제*. 이끌리오, p. 146.
- 41)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광개토대왕 비석에는 ‘호태왕’이라 하여 광개토대왕을 태왕이라 칭하고 있다. 태왕 사신기에서는 광개토대왕 당시 광활한 영토를 주신이라고 이름하고, 광개토대왕을 고구려의 왕을 넘어 주신의 왕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료출처 태왕사신기 스페셜.
- 42)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4회 다시보기.
- 43)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4회 다시보기.
- 44) 최인호는 제왕의 문에서 #문양은 광개토대왕의 고유적 상징으로, 태왕군의 상징적 문양으로 보았다. 자료검색일 2009. 11. 25. 자료출처 <http://7lhades.tistory.com/tag/>
- 45)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4회 다시보기.
- 46)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4회 다시보기.
- 47)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4회 다시보기.
- 48)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5회 다시보기.
- 49) 박가영 (2001). 고구려 갑주의 고증 제작. *한복문화*, 4(1), pp. 81-82.
- 50) 장경숙. *앞의 논문*, p. 50.
- 51) 김소민 (2006. 10. 26). 옷 대충 입는 사극 가당찮소. *한겨레 뉴스*. 자료검색일 2009. 10. 29.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167356.html>.
- 52) 송형국 (2006. 4. 12). 방송3사 불붙는 대하사극, 고대사 복식 재현 디자인 경쟁.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09. 10. 6. 자료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4131804541&code=960801
- 53) 박가영. *앞의 논문*, p. 80.
- 54) *위의 논문*, p. 79.
- 55) 조우현, 권준희, 박윤미, 김혜영, 조현진. *앞의 책*, p. 248.
- 56) 김기웅 (1977).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70.
- 57) 자료캡처일 2009. 7. 29. 자료출처 sbs.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1회, 2회 다시보기.
- 58) 자료캡처일 2009. 8. 1. 자료출처 imbc. MBC 특별기획드라마 태왕사신기 13회, 16회 다시보기.
- 59) 유미진. *앞의 논문*, p. 39.